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보 도 자 료	2016. 1. 22(금)	
		작 성 · 문 의	사회조정실 교육정책과 과장 김주연 / 서기관 한레지나 (Tel. 044-200-2323)
엠바고	16:30 (행사종료) 이후 사용		

황교안 총리, 누리과정 관련 긴급 현장 상황 점검

□ **황교안 국무총리**는 1월 22일(금) 경기도 광명시 트인아이 유치원을 방문하여 **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, 학부모** 등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된 간담회를 가졌다.

○ 이번 현장 간담회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**현장 의견을 청취**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**그간의 정부의 노력**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○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는 시·도교육감과 시·도의회는 **지금이라도 법령상 의무인 누리과정 예산을 즉시 편성**하여 **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**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.

※ 붙임 : 황교안 총리 인사말씀자료

< 붙임 :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황교안 국무총리의 인사말씀 >

□ 최근 **일부 시도교육청**에서 **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,**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**우려가** 크시다는 것을 알고 있음

○ 이에 **직접 현장**의 **생생한 의견**을 듣기위해 오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음

□ **누리과정**은 **지난 정부 시절인 2012년**부터,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**유아교육과 보육의 공통과정**을 국가가 책임지되, **소요되는 재원**은 **지방교육재정교부금**으로 **추진**하기로 하고 시행되었음

○ 당시 **시도 교육감**들도 교육계의 **오랜 숙원**이 실현된 만큼 도입을 **찬성**하고 **적극 지원**하기로 한바 있음

○ 이러한 **누리과정 예산편성**은 유아교육법령, **지방재정법령 등**에 따른 **법령상 의무**로서 **교육감이 편성해도 되고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의무지출경비임**

□ 그럼에도 **일부 교육감**들이 시도교육청의 **재정이 어려워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**하고 있으나, 정부는 **시도교육감들**이 **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편성가능**하다고 보고있음

○ **교육부가 이미 작년 10월**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보통교부금에 **시도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아 수를 모두 고려**하여 **누리과정 지원액 전체**를 **교부**하였으며

○ 올해 **지방교육재정은 세수여건 개선**으로 상당히 호전되어 **전년대비 1.8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**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**국회에서 여야 합의**로 **목적예비비 3,000억원**도 **편성·지원될 예정**임

○ 또한, 최근 **시도교육청의 예산상황**을 **점검**해본 **결과, 낭비요소 등**을 **절감**하면 **누리과정을 충분히 지원 가능**한 것으로 나타남

□ **일부**에서는, **대통령 공약**에서 3~5세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**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**해야 한다고 **주장하**고 있으나 이것은 **사실과 다름**

○ **지방교육재정교부금**은 **내국세의 20% 상당**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**국가재원에 해당**되므로, **국가가 책임진다는 점**에서 **하등 다를 바가 없음**

○ 그런데 **일부 교육감·지방의회**에서는 **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삭감**하고, **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강행추진**하면서 **돈이 없다고 주장**하는 상황임

○ 특히 **서울·경기 등 지방의회**에서는 그간 **문제없이 편성**해오던 **유치원 예산**까지 **삭감**하고, 삭감한 유치원 예산을 **유보금으로 돌려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아 학부모**들의 **걱정**이 **가중**되고 있음

□ **정부는 시도교육감과 시도의회**를 **설득**하여 2016년 누리과정 **예산을 조속히 편성**하도록 하여 **지금의 어려움을 해소**하는데 **최선**을 다할 것임

○ 일부 교육청과 시도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**교원**들의 **임금 체불, 난방비·급식비 등 운영비 지급이 어려워지는**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**매우 유감**임

○ **학부모와 소중한 우리아이들**을 상대로 **보육대란**을 일으켜 **정치적**으로 **악용**하겠다는 **비교육적 의도**가 **아니길 바람**

□ 오늘, **허심탄회**하게 **현장의 어려움과 고충**들에 대해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람